

본회 36번째 지회로 충북 단양 등록

- 단양지회 창립총회, 초대지회장에 황대기씨 -

본회 36번째 지회로 단양지회가 등록됐다. 지난 6월26일 단양관광호텔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단양지회 회원들은 앞으로 지역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본회 김은성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회설립을 위해 애쓴 추진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단양에서 지회가 탄생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오늘의 창립총회가 단양지역 양록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격려사 후에는 지역 회원들의 추천으로 황대기(대림사슴목장)씨가 지회장을,

전재한씨가 사무장을, 이기원씨가 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단양지회 초대 지회장을 맡게된 황대기씨는 인사말을 통해 “중책을 맡겨주신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역 양록산업이 보다 높은 소득축종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는 본회 오재덕이사 와 소백지회 김영석지회장이 참석, 단양지회의 출발을 축하했다.

김영석지회장은 “같은 관내에 위치한 만큼 하나의 식구로 생각하고 잦은 교류와 만남을 통해 정보교환 및 친목을 다지자”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민국양록**

